

專門大學院의 位相定立

—교육대학원을 중심으로—

金 大 淵
(弘益大 教育大學院長)

1. 問題의 提起

우리나라 大學院 敎育은 194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現代의 性格을 띤 大學院은 1953년부터이며 1960년대에 이르러 각종 專門大學院 設置 추세와 더불어 그 숫자는急增하기 시작하였다.

專門大學院은 1959년 서울大 行政大學院 設立를 시작으로 196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大學院 敎育은 40여 년의 歷史와 傳統을 지니게 되었고, 專門大學院도 30여 년의 年輪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동안 量的 면에서는 크게 성장하여, 전국적으로 1990년 9월 현재 一般大學院이 97개, 專門大學院이 201개로서 모두 298개 大學院이 설치되어 있으며, 學生 總定員은 86,911명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40여 년의 歷史와 더불어 大學院은 심오한 學問研究와 敎育을 통하여 많은 碩·博士를 배출하였고 社會開發에 필요한 專門高級人力 養成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또한 民族文化 창달의 센터로서, 知識創造의 최고 전당으로서 국가·사회 및 人類文化 발전에 기여해 온 바가 크다.

그러나 學問의 秀越性 유지와 獨創의 思考力을 가진 유능한 專門人 養成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量的 成長에 비해 質的 管理가 미흡했다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專門大學院이 사회의 각종 專門職 및 管理職 수행에 필요한 特殊專門敎育을 실시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中堅指導者 양성을 전제로 한다고 할 때, 그 量的과 質的 면에서 본래의 設立趣旨와 目的에 부합될 수 있는 成長과 發展을 기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의문과 비판의 소리 또한 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오늘날 고도의 産業社會化와 情報化社會, 多樣化社會, 知識暴發時代에 대응한 고급 인력 양성과 새로운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 추세에서 낙후되지 않고 先導的 位置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大學院 敎育의 기능과 역할의 확대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 요구에 부응·대처해 나가기 위한 繼續敎育·平生敎育의 필요성과 再敎育需要를 충족시켜야 할 現實的 必然性과 未來社會로의 지향과 도전이라는 敎育 방향 모색의 時代的 當爲性에 입각해서 볼 때, 전문대학원이 본래의 敎育目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敎育·연구 전당으로서의 그 位相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稿에서는 專門大學院의 位相 定立을 위한 검토로서 우선 전문대학원의 現況과 問題點을 개괄적으로 검토·음미하여 보는

동시에 그와 연관지어 전문대학원 중 量的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教育大學院’을 중심으로 ① 設立目的 및 性格, ② 量的 現況과 學生定員, ③ 敎育課程 구성과 운영, ④ 學位取得 節次 및 學位論文, ⑤ 博士學位課程의 入學資格과 進路, ⑥ 入學銓衡方法 및 基準, ⑦ 特惠規定·制度 등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專門大學院의 目的 및 性格

전문대학원은 設立目的 및 性格에 대한 명백한 法的 根據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전문대학원의 目的·性格에 대한 法的 規定이 모호하며,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특성 구분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각 대학원 요람에 제시된 設立目的도 多樣性을 띠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원의 교육 목적은 각 대학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추상적이고 애매한 용어로 나름대로의 교육 목적을 學則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敎育法上的 근거는 敎育법 제108조 ‘大學敎育 目的’과 문교부 훈령인 大學規定 제2조에 연계시키고 있다. 즉, 敎育法 제108조 규정에 보면, “大學은 국가와 人類社會의 발전에 필요한 學問의 심오한 理論과 그 광범하고 정직한 응용 방법을 敎授·研究하며 指導의 人格을 陶冶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라는 대학교육에 대한 기본 규정 속에 함축시키고 있다. 또한 大學院 規定 제2조에서 보면, “大學院은 대학교육의 목적을 일층 심오하게 추구하는 동시에 學問研究의 지도 능력과 獨創力을 함양함을 目的으로 한다”고 표현되어 있어 대학교육의 연장과 上位 水準을 수행하는 정도의 목적을 벗어나지 못하는 감을 주고 있다.

專門大學院은 그 性格이나 專門性이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그 교육 목적이나 성격도 그 특성에 맞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전문대학원은 각종 專門職 및 管理職 수행에 필요한 特殊專門敎育을 실시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中堅指導者 양성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 主眼點으로 검토하려는 ‘教育大學院’의 설립 목적과 성격에 대한 분명한 규명 문제

가 設立된 지 28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再論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敎育大學院의 正體性과 位相이 근원적으로 정립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敎育大學院의 분명한 目的 設定과 性格 規定은 바로 敎育大學院의 교육 목표, 교육 내용 및 방법, 제반 제도, 교육 방향을 결정해 주는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敎育大學院의 目的·性格을 분명히 규정한 法的 根據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대학원 요람에 제시된 ‘設立目的’ 역시 敎育법 제108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다양성을 띠고 있다.

예컨대 “대한민국의 敎育理念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교육 발전에 결친 심오한 理論과 實際를 敎수·연구하며 指導的 資質을 함양하여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女性敎育 專門家를 양성함을 目的으로 한다”(E대학의 경우)로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대학원이 “敎育法 제108조에 의하여 교육에 관한 理論과 實際를 심오하게 연구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敎育자로서의 指導的 役割을 함양함을 目的으로 한다”(J대학의 경우)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一般大學院과 專門大學院의 敎育體制 및 機能의 특성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간의 모호했던 機能 分擔과 미비하였던 연계 체제로 인해 초래된 대학원 교육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機能上的 分擔과 각 과정 간의 관계를 분명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專門大學院의 증가 추세에 따라 一般大學院을 등한시하거나, 반면 專門大學院을 格下視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기능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敎科課程의 운영 및 시설의 활용에 있어서도 긴밀한 연관성을 맺고 협조함으로써 相互 敎育의 充實과 補完的 機能을 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大學院 敎育의 體制에 관하여는 敎育법 제109조에서 “大學(校)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敎育법 시행령 제118조에서 “大學院에 碩·博士學位課程을 둔다”고 되어 있고 文敎部 훈령으로서 ‘大學院 規定’을 두어 敎員, 入學資格, 授業, 學位授與 등을 규정하고 있

어 어디까지나 대학의 부수적인 존재로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大學院 教育體制는 碩·博士課程의 기능이 미분화된 상태에서 각각 독립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機能 定立 등에 관련된 法的 條件도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로는 이들 두 대학원이 二元化되어 있는 양상이며 별도로 독립된 大學院(韓國精神文化研究院·韓國科學技術院)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은 교육 체제나 기능 면에서 그 特性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대학원은 '大學'에서 學士資格을 얻은 자가 상위 碩·博士學位를 취득하기 위하여 진학하는 學部의 母學科와 접속되는 進學通路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순수 學問研究를 바탕으로 전문 기술인과 大學敎員 양성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전문대학원은 대학 學部課程 이수자에게 사회의 각종 전문직 및 관리직 수행에 필요한 特殊專門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 중견 지도자의 양성과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再教育·繼續教育 기관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전문대학원으로서의 '教育大學院'은 초·중등 교원 양성 기관인 教育大學 및 師範大學과 접속, 연계성을 가지는 현직 교원의 재교육 및 계속교육 기관의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上位 資格取得과 教育學 碩士學位取得 과정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순수 學問研究를 강조하는 일반대학원에 비하여 應用 학문 연구를 바탕으로 社會奉仕 기능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大學院 교육의 기능은 <표 1>에서와 같이 크게 석·박사과정의 구분없이 연구 기능, 대학 교원 양성 기능, 고급 전문 인력 양성 기능 및 사회 봉사 기능 등으로 再教育和 繼續教育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상에서 教育大學院의 목적과 성격을 관련 교육법과 規定 등을 참고로 검토해 보았으나, 어디까지나 교육대학원의 주된 교육 대상은 現職 敎員들이기 때문에 주된 교육 목적도 敎師의 再教育을 통한 敎職의 專門性 제고와 교육에 관한 새로운 이론과 방법 및 기술 등의 습득, 연구 결

<표 1> 대학원 종류별 기능

구분	종 류 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독립대학원
주 기 능	· 전문학술인의 양성 · 연구 · 대학교원 양 성 · 고급 전문 인 력 양성	· 재교육 · 계속교육 · 고급 전문 인 력 양성	· 연구 · 고급 전문 인 력 양성
보 조 기 능	· 재교육, 계속 교육	· 연구	· 대학 교원 양 성

* 독립대학원으로는 정신문화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된 2개의 대학원이 있다.

과의 教育現場 적용, 교육 개선과 社會奉仕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대학원의 교육 목적은 敎授·研究·社會奉仕를 수행할 수 있는 지도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데 있으나, 교육대학원의 正體性은 교수·연구·사회 봉사의 주된 대상이 '教育'이라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이 對象이 명확하지 못하면, 교육대학원과 일반대학원 및 다른 전문대학원과의 변별은 어렵게 되며 교육대학원의 機能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3. 量的 現況과 問題點

전문대학원의 學生定員은 대폭 增員되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專門大學院이 43種에 201개 大學院이라는 量的 現況에서 볼 때, 學生定員 36,429명은 극히 미흡하고 專攻別·系列別로도 영세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學生定員 분포 상황에서도 불합리성을 나타내고 있다. 고도의 知識社會와 知價社會에 대응해서 知識人 공급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個人의 知的 充足을 위해서는 學生定員은 대폭 增員되어야 한다.

1990년 9월 현재 全國 大學院의 量的 現況을 보면, 위의 <표 2>에서와 같이 298개 大學院(일반대학원 97개, 전문대학원 201개)에 총 학생 정원은 93,093명(석사과정 78,853명, 박사과정 14,240명)이며, 현재 재적 학생 수는 석사과정

〈표 2〉 전국 대학원의 양적 현황

(1990년 9월 현재)

구분	국립			공립			사립			전체								
	일	반	전	문	소	계	일	반	전	문	소	계	일	반	전	문	소	계
학 교 수	21	40	61	1	2	3	75	159	234	97	201	298						
학 과 수	석사	801	148	949	27	9	36	2,170	708	2,878	2,133	865	2,998					
	박사	425	—	425	7	—	7	857	—	857	1,289	—	1,289					
	계	1,228	148	1,376	34	9	43	3,027	708	3,735	3,422	865	4,287					
인가정원	석사과정	14,379	7,291	21,670	184	220	404	24,861	28,918	53,779	39,424	39,429	78,853					
	박사과정	5,203	—	5,203	55	—	55	8,982	—	8,982	14,240	—	14,240					
	계	19,582	7,291	26,873	239	220	459	33,843	28,918	62,761	53,664	39,429	93,093					
제 적 학 생 수	석사	남	10,076	5,356	15,432	125	190	315	16,450	23,087	39,537	26,651	28,633	55,284				
		여	2,717	1,580	4,297	21	10	31	7,171	5,634	12,805	9,909	7,224	17,133				
		소 계	12,793	6,936	19,729	146	200	346	23,621	28,721	52,342	36,560	35,857	72,417				
	박사	남	4,632	—	4,632	34	—	34	7,401	—	7,401	12,067	—	12,067				
		여	681	—	681	4	—	4	1,742	—	1,742	2,427	—	2,427				
		소 계	5,313	—	5,313	38	—	38	9,143	—	9,143	14,494	—	14,494				
	전체	남	14,708	5,356	20,064	159	190	349	23,851	23,087	46,938	38,718	28,633	67,351				
		여	3,398	1,580	4,978	25	10	35	8,913	5,634	14,547	12,336	7,224	19,560				
		계	18,106	6,936	25,042	184	200	384	32,764	28,721	61,485	51,054	35,857	86,911				

* 자료 :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90, pp.658~669에서 발췌 인용함.

〈표 3〉 대학원 개황

(1990년 9월 현재)

구분	원 수	학 과 수	학 생 수		입 학 자 수		학 위 취득 자 수		전 임 교 원 수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1965	37	550	3,842	301	1,682	—	986	103	165	—
'70	64	813	6,640	807	3,226	384	2,150	229	165	6
'75	82	1,230	13,870	2,278	6,757	1,072	3,466	574	162	6
'80	121	1,757	33,939	5,786	17,067	3,152	5,552	1,038	238	3
'85	201	2,939	68,178	12,452	29,381	5,635	18,037	3,229	412	32
'86	203	2,951	69,962	13,341	27,562	5,571	18,701	3,403	431	38
'87	209	2,942	70,364	13,959	28,460	6,130	20,669	3,945	—	—
'88	251	3,670	75,117	15,565	32,588	7,320	21,019	4,135	—	—
'89	278	2,774	81,171	17,563	33,138	7,898	21,292	4,428	—	—
'90	298	2,998	86,911	19,560	35,276	8,718	22,269	5,036	—	—
국립	61	801	25,042	4,978	10,693	2,370	6,546	1,171	—	—
공립	3	27	384	35	143	18	47	6	—	—
사립	234	2,170	61,485	14,547	24,440	6,330	15,676	3,859	—	—

* 자료 : 중앙교육평가원, 「문교통계연보」, 1990.

(표 4) 전문대학원 현황

(1990년 9월 현재)

구	분	학 교 수	총 정 원 수			재 적 학 생 수		
			계	주 간 야 간	주 야 간	계	여 자	
총 계 Grand Total		201	36,429	2,667	27,130	6,632	35,857	7,224
교 육 대 학 원	Education	46	12,132	899	9,761	1,472	12,536	4,690
경 영 대 학 원	Business	29	6,345	—	4,485	1,860	6,252	278
행 정 대 학 원	Public Administration	27	4,260	—	3,270	990	4,245	257
산 업 대 학 원	Industry	19	3,174	—	3,174	—	2,975	359
무 역 대 학 원	Foreign Trade	5	985	—	985	—	1,000	58
환 경 대 학 원	Environment	5	630	—	350	280	598	98
보 건 대 학 원	Public Health	6	685	200	340	145	700	287
산 업 미 술 대 학 원	Industrial Design	2	570	—	240	330	592	465
사 회 개 발 대 학 원	Social Development	2	435	—	435	—	387	81
경 영 행 정 대 학 원	Business Administration	4	420	—	420	—	283	14
도 시 행 정 대 학 원	Urban Studies	1	160	—	160	—	155	9
국 제 경 영 대 학 원	Industrial Management	2	330	—	80	250	313	11
환 경 과 학 대 학 원	Environment Sciences	1	190	—	190	—	205	25
식 량 개 발 대 학 원	Food & Agriculture	1	200	—	—	200	168	37
지 역 개 발 대 학 원	Regional Development	4	380	—	380	—	356	14
신 문 방 송 대 학 원	Mass Communication	2	275	—	75	200	252	68
동 역 대 학 원	Foreign Studies	1	173	173	—	—	169	118
평 화 북 지 대 학 원	Peace Studies	1	100	—	—	100	33	6
중 소 기 업 대 학 원	Small Business	4	360	—	360	—	294	9
건 설 대 학 원	Architectural	1	155	—	—	155	141	—
경 영 정 보 대 학 원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1	185	185	—	—	220	21
신 학 대 학 원	Theology Seminary	10	1,770	1,035	85	650	1,646	96
농 축 개 발 대 학 원	Agro-Livestock Development	1	115	—	115	—	116	9
정 보 산 업 대 학 원	Information Science	2	190	—	190	—	236	18
산 업 정 보 대 학 원	Engineering Management Information	2	225	—	225	—	221	7
연 합 신 학 대 학 원	United Theology Seminary	1	95	95	—	—	105	17
국 제 학 대 학 원	International Studies	1	80	80	—	—	144	42
정 책 과 학 대 학 원	Policy Studies	1	220	—	220	—	164	11
산 업 과 학 대 학 원	Industrial Science & Technology	2	200	—	200	—	140	2
사 회 교 육 대 학 원	Social Education	1	95	—	95	—	103	11
공 공 정 책 대 학 원	Public Policy	1	125	—	125	—	176	31
유 학 대 학 원	Confucian Studies	1	80	—	80	—	75	6
정 보 과 학 대 학 원	Information Science	1	80	—	80	—	108	5
산 업 기 술 대 학 원	Industrial Technology	2	140	—	140	—	100	3
산 업 경 영 대 학 원	Industrial Business	2	270	—	270	—	263	14
해 사 산 업 대 학 원	Marine Industry	1	60	—	60	—	21	—
정 책 개 발 대 학 원	Political Development	1	60	—	60	—	39	3
지 역 사 회 개 발 대 학 원	Community Development	2	120	—	120	—	90	9
노 사 관 계 대 학 원	Finance	1	120	—	120	—	89	5
금 용 대 학 원	Labor & Management Relation	1	60	—	60	—	48	2
관 리 과 학 대 학 원	Administrative Science	1	60	—	60	—	32	4
산 업 기 술 경 영 대 학 원	Industrial Management	1	60	—	60	—	43	1
어 성 학 대 학 원	Women Studies	1	60	—	60	—	24	23

* 자료 :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90.

이 2,998 개 학과에 72,417 명, 박사과정은 1,289 개 학과에 14,494 명으로 총 재적 학생 수는 86,911 명(남 67,351 명, 여 19,560 명)이다.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學生定員 및 재적 학생 수를 살펴 보면, 석사과정 총 인가 정원 78,853 명 가운데 일반대학원이 39,424 명, 전문대학원은 39,429 명이다. 또한 석사과정 재적 학생 수는 총 72,417 명 중 일반대학원이 총 2,133 개 학과에 36,560 명이고, 전문대학원은 총 865 개 학과에 35,857 명이 재적하고 있다.

碩士學位課程의 총 인가 정원과 재적 학생의 비율을 보면, 일반대학원은 인가 정원 39,424 명 중 재적 학생 36,560 명으로 총 정원의 92.7% 이고 전문대학원은 인가 정원 39,429 명 중 35,857 명이 재적하고 있으므로 총 정원의 91%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1965 년 이후 1990 년에

이르기까지의 大學院 增加 추세와 學生의 증가 상황을 보면, 앞의 <표 3>에서와 같이 1965 년 37 개교에서 1990 년에 이르러 298 개교로서 약 8 배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학생 수도 1965 년은 3,842 명에 불과하였던 것이 1990 년에는 모두 86,911 명으로 약 23 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學位取得者 수도 1965 년 986 명에서 1990 년에는 22,269 명으로 약 23 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全國 專門大學院의 각 大學院 別 학생 현황을 살펴 보면, 앞의 <표 4>에서와 같이 전국 43 종의 專門大學院에 총 학과(專攻) 수 865 개에 총 정원은 36,429 명으로 대학원 수와 학과(專攻) 수에 비해 量的 면에서 영세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재적 학생 수는 35,857 명으로 총 정원의 91%에 그치고 있다. 한편 대학원을 개

<표 5> 전국 교육대학원 현황

(1990 년 9 월 현재)

구 분	총 정원	야·(주)계			전공 수	구 분	총 정원	야·(주)계			전공 수
		야	(주)	계				야	(주)	계	
강 원 대	295			0	21	동 아 대	322	0			24
경 북 대	400	0			27	삼 명 여 대	60	0			8
경 상 대	350	0			26	서 강 대	60	0			9
부 산 대	420	0			22	성 균 관 대	250	0			13
전 남 대	430	0		0	20	성 신 여 대	150	0			12
전 북 대	345		(주)	0	21	부 산 외 대	60	0			3
제 주 대	122	0	(주)		10	수 원 대	60	0			5
충 남 대	365	0	(주)		15	숙 명 여 대	270	0			21
충 북 대	295	0	(주)		19	연 세 대	605	0			21
공 주 대	435	0		0	25	영 남 대	400	0			21
건 국 대	330	0		0	20	울 산 대	60	0			8
경 기 대	103	0			11	원 광 대	260	0	(주)		17
경 남 대	295	0		0	17	이 화 여 대	615	0		0	12
경 원 대	60	0			6	인 천 대	171	0		0	14
경 회 대	430	0	(주)		18	인 하 대	300	0			16
계 명 대	316	0			23	전주우석대	155	0		0	8
경 성 대	116	0		0	8	조 선 대	283	0			21
고 려 대	630	0		0	21	중 앙 대	250	0			17
관 동 대	113	0		0	7	한 국 외 대	220	0		0	14
국 민 대	239		(주)	0	17	한 남 대	78	0			6
단 국 대	350	0			23	한 양 대	360	0			21
대 구 대	128	0			20	홍 익 대	235	0			12
등 국 대	301	0			20	효 성 여 대	40	0			2
총 계					46	12,132					722

* 본 자료는 문교부 통계 자료에 의함.

별적으로 보면, 100명 이하의 學生定員을 가지고 있는 대학원이 11개, 100~150명 이하가 6개, 151~200명 이하가 5개교로서 각 대학원의 特殊性이나 社會的 需要 면에서도 量的으로 극히 미흡하며, 大學院 자체의 경영·운영 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전문대학원의 學生定員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한 이유는 중점 검토하려는 '教育大學院' 양적 현황의 분석·검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표 5>에서 1990년 현재 全國 教育大學院의 量的 現況을 살펴 보면, 46개 대학원에 학생 총 정원은 12,132명에 불과하다. 그중 季節制가 14개, 夜間制가 32개교이다.

이같은 入學定員 12,132명이라는 숫자는 1개 大學院當 264명 꼴이다. 이를 全國 초·중등 교원 수 306,359명과 대비해 보면, 4%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치열한 入試競争率과 46개 대학원 중 학생 정원 200명 이하의 대학원이 16개이고 미등록자가 평균 15%나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영세 대학원들은 실제 운영 면에도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전국 교원 수와 총 학생 정원의 대비에서 上述한 바(<표 6> 참조), 306,359명의 교원과 과의 비율은 4%이며,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9%, 충북 6%, 전남 5%, 기타 지역은 불과 2~4%에 지나지 않는다.

教育大學院이 교원들의 再教育 기관이며 敎職의 專門性을 높이고 교사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교육 기관으로서의 特性을 지니고 있다면, 이같은 현상은 그동안 教育部가 역계 일변도로 지속하고 있는 學生定員政策의 결과라고 이해되며, 이는 앞으로 교육대학원 學生定員을 현실에 맞게 대폭 증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立證해 주기도 한다.

한편, 學生定員은 地域別·系列別·專攻別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 인가해야 한다.

전문대학원의 地域別·系列別·專攻別 學生定員의 분포 상황을 뒤의 <표 7>과 <표 8>에서 보면, 서울 지역이 전체 201개 大學院 중 84개교로서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 수도 전체

<표 6> 전국 시·도 지역 교육대학원 학생 정원과 교원 수의 비율

(1989년 현재)

구분	교원 수	교육대학원 학생 정원	비율 (대비: %)
서울	62,017	5,355	9
부산	24,192	918	4
경북	39,631	1,344	3
경남	27,967	645	2
강원	15,887	408	3
경기	42,295	694	2
전북	19,511	760	4
전남	14,570	713	5
충북	11,685	730	6
충남	24,399	443	2
제주	4,205	122	3
계	306,359	12,132	4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9 발췌 인용함.
주: 1) 위 표의 시·도 지역별 교원 수는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인문·실업계) 교원 및 특수 학교 교원이 포함되어 있음.
2) 경북 지역에는 대구직할시가 포함되어 있고, 경기 지역에는 인천시, 전남 지역에는 광주시, 충남 지역에는 대전시가 포함됨.

35,857명 중 20,239명으로 56%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전술한 바 전국 43種의 大學院別로 그 特殊性을 고려할 때, 勞使關係大學院, 産業技術大學院, 女性學大學院 등은 각각 1개교만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현재 재적 학생 중 休學生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표 9>에서 보면, 주간 재학생 5,569명 가운데 휴학생이 508명(9%)이나 되며, 야간 재적 학생 30,288명 중 휴학생은 2,623명으로 약 9%를 점유하고 있다.

教育大學院의 경우 專攻別 설치 상황 및 地域別 분포 상황을 살펴 보면, 全國 46개 教育大學院에 설치되어 있는 專攻은 70種이며 총 專攻 수는 722개에 달하고 있다.

각 系列別·專攻別 설치 현황을 뒤의 <표 10>에서 보면, ① 教育系列(20개 전공), ② 語文系列(11개 전공), ③ 理工系列(11개 전공), ④ 藝·體能系列(8개 전공), ⑤ 實業·技術教育系列(7개 전공), ⑥ 社會·其他系列(13개 전공) 등이다.

이상의 전공별 설치 현황에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표 7〉 전문대학원 지역별 현황

(1990년 9월 현재)

구	분	학 교 수	학과 수 (전 공)	총 경 원 수				계 적 학 생 수						
				계	주 간	야 간	주·야간	계	주 간			야 간		
									계	재학생	휴학생	계	재학생	휴학생
서 울	84	378	20,153	1,527	14,681	3,945	20,239	2,550	2,296	254	17,689	16,026	1,663	
부 산	18	89	2,828	200	2,078	550	2,572	197	186	11	2,375	2,208	167	
대 구	11	33	1,849	—	1,849	—	1,766	—	—	—	1,766	1,570	196	
인 천	5	25	831	—	831	—	793	—	—	—	793	714	79	
광 주	7	8	1,433	—	1,083	350	1,397	281	265	16	1,116	1,023	93	
대 전	10	37	1,368	300	503	565	1,261	667	620	47	594	548	46	
경 기	21	95	1,728	—	1,318	410	1,707	326	280	46	1,381	1,234	147	
강 원	7	10	788	295	493	—	589	267	251	16	322	305	17	
충 북	6	34	710	—	415	295	793	335	289	46	458	402	56	
충 남	3	36	555	—	555	—	487	397	356	41	90	86	4	
전 북	11	36	1,410	345	670	395	1,254	492	463	29	762	734	28	
경 북	8	39	1,170	—	1,170	—	1,476	57	55	2	1,419	1,352	67	
경 남	8	34	1,424	—	1,424	—	1,385	—	—	—	1,385	1,332	53	
제 주	2	11	182	—	60	122	138	—	—	—	138	131	7	

* 자료 :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90.

〈표 8〉 전문대학원 계열별 학생 수 현황

(1990년 9월 현재)

구	분	학 교 수	학과 수	계 적 학 생 수						
				계	주 간			야 간		
					계	재학생	휴학생	계	재학생	휴학생
인 문 계	—	32	2,051	1,867	1,656	211	184	155	29	
사 회 계	—	35	2,355	207	203	4	2,148	1,918	230	
공 립	—	8	197	—	—	—	197	183	14	
사 립	—	271	11,991	313	261	52	11,678	10,404	1,274	
자 연 계	—	46	732	209	199	10	523	499	24	
사 립	—	128	4,222	74	58	16	4,148	3,828	320	
의 약 계	—	5	373	124	111	13	249	238	11	
사 립	—	7	267	—	—	—	267	249	18	
에 채 능 계	—	1	3	—	—	—	3	3	—	
공 립	—	13	1,008	134	119	15	874	781	93	
사 립	—	62	3,476	1,730	1,577	153	1,746	1,604	142	
사 립	—	257	9,182	911	877	34	8,271	7,803	468	

* 자료 :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90.

주 : 위 표의 학과 수는 전공별로 설치된 경우 '전공 수'를 집계한 것임.

〈표 9〉 전문대학원 재직 학생·휴학생 현황

(1990년 9월 현재)

구분	학교 수	학과 수	총 정 원 수				재 적 학 생 수						
			계	주간	야간	주·야간	계	주간		야간			
								재학생	휴학생	재학생	휴학생		
총	201	865	36,429	2,667	27,130	6,632	35,857	5,569	5,061	508	30,288	27,665	2,623
국립	40	148	7,291	840	3,954	2,497	6,936	2,270	2,090	180	4,666	4,259	407
공립	2	9	220	—	220	—	200	—	—	—	200	186	14
사립	159	708	28,918	1,827	22,956	4,135	28,721	3,299	2,971	328	25,422	23,220	2,202

* 자료 :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90.

주 : 위 표의 학과 수는 전공별로 설치된 경우 '전공 수'를 집계한 것임.

〈표 10〉 교육대학원 전공별 설치 현황

(1990년 9월 현재)

		전공			설치 현황			전공			설치 현황
교육대학원	교육사회의 실천 방안	행정	심리	법학	37	이공계열	생물	교육	교육	27	
		가정	교육	교육	11		생물	교육	교육	33	
		물리	교육	교육	2		물리	교육	교육	26	
		화학	교육	교육	9		화학	교육	교육	9	
		자계산	교육	교육	2		자계산	교육	교육	10	
		기계	교육	교육	3		기계	교육	교육	1	
		화학	교육	교육	1		화학	교육	교육	28	
		지구	교육	교육	5		지구	교육	교육	7	
		지구	교육	교육	1		지구	교육	교육	3	
		체육	교육	교육	5		체육	교육	교육	1	
		음악	교육	교육	1		음악	교육	교육	36	
		미술	교육	교육	8		미술	교육	교육	20	
		체육	교육	교육	9		체육	교육	교육	29	
		수업	교육	교육	4		수업	교육	교육	1	
체육	교육	교육	1	체육	교육	교육	1				
체육	교육	교육	11	체육	교육	교육	1				
체육	교육	교육	1	체육	교육	교육	3				
체육	교육	교육	1	체육	교육	교육	2				
체육	교육	교육	5	체육	교육	교육	1				
체육	교육	교육	14	체육	교육	교육	23				
체육	교육	교육	3	체육	교육	교육	11				
어문대학원	국어학의 이론적·실용적 연구	국어학	국어학	국어학	39	사회기타	국어학	국어학	국어학	1	
		국어학	국어학	국어학	36		국어학	국어학	국어학	32	
		국어학	국어학	국어학	18		국어학	국어학	국어학	27	
		국어학	국어학	국어학	15		국어학	국어학	국어학	13	
		국어학	국어학	국어학	9		국어학	국어학	국어학	23	
		국어학	국어학	국어학	9		국어학	국어학	국어학	4	
		국어학	국어학	국어학	5		국어학	국어학	국어학	1	
		국어학	국어학	국어학	2		국어학	국어학	국어학	32	
		국어학	국어학	국어학	1		국어학	국어학	국어학	27	
		국어학	국어학	국어학	1		국어학	국어학	국어학	13	
		국어학	국어학	국어학	1		국어학	국어학	국어학	23	
		국어학	국어학	국어학	1		국어학	국어학	국어학	4	
		국어학	국어학	국어학	37		국어학	국어학	국어학	1	

전	공	설치 현황	전	공	설치 현황
도	서	관	교	육	1
산	업	심	리	교	육
중	교	교	육	3	
정	보	치	리	교	육
					1
					5
					1
					5
총계 : 70개 전공 722개 설치					

* 자료 : 문교부, 「교육대학원 설치 현황」, 1990 참조.
 · 과학교육(물리, 화학, 생물, 지학)
 · 사회교육(일사, 역사, 지리)

· 어학교육(국어, 영어, 불어, 독어)
 · 외국어교육(영어, 독어, 불어, 일어)

첫째, 전공 분야가 너무 細分化되어 分科主義的 脆弱性을 지니고 있으며, 전공 자체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사례가 있다.

둘째, 일반대학원 學問研究 계열에 설치될 수 있는 '教育學' 전공 설치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同質인 전공의 분산된 전공 명칭은 혼돈을 가져 오게 한다. 그 예로 상담심리, 상담지도, 상담교육, 학교상담 등의 전공을 들 수 있다.

셋째, '日本社會' 전공 설치는 교육대학원 전

공 분야로서는 알맞지 못하며, '기계교육' 전공 역시 工高機械科 教師 진출의 門은 될지 모르나, 이는 '工業教育', '技術教育' 전공 영역에서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再考되어야 할 것이다.

專攻分野別로 보면 대체로 ① 국어교육(39), ② 교육행정(37), ③ 수학교육(37), ④ 영어교육(36), ⑤ 체육교육(36), ⑥ 가정(학)교육(33), ⑦ 역사교육(32), ⑧ 미술교육(29), ⑨ 화학교육(28), ⑩ 일반사회교육(27) 등의 순으로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다.

〈표 11〉 전국 시·도 지역별 학생 정원 분포 상황



총계 : 12,132명(%) (46개 대학)

- 서울시 : 5,355명(17개교)
 - 부산시 : 918명(4개교)
 - 경북 : 1,344명(6개교)
 - 경남 : 645명(2개교)
 - 강원 : 408명(2개교)
 - 경기 : 694명(5개교)
 - 전북 : 760명(3개교)
 - 전남 : 713명(2개교)
 - 충청 : 730명(2개교)
 - 충남 : 443명(2개교)
 - 제주 : 122명(1개교)
- 주) 경북 지역 : 대구시 포함 경기 지역 : 인천시 포함
 전남 지역 : 광주시 포함 충남 지역 : 대전시 포함

다음으로 전국 市·道 地域別 教育대학원 學生 定員의 분포 상황을 보면, 앞의 <표 11>에서와 같이 총 정원 12,132명 중 서울 지역이 17개 대학원에 총 5,355명으로 44%를 점유하고 있어 서울 集中現象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 순위로 경북 지역이 1,344명(11%)이며, 부산 지역은 918명(8%)으로 3위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지역별 학생 정원의 分布狀況은 각 지역별 교원 수와의 비율에서 서울 9%, 충북 지역 6%, 전남 지역이 5%, 기타 지역들은 불과 2~4%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대학원 정원 정책의 不在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現職敎員 再敎育의 기회 균등과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專門大學院의 量的 現況 검토를 토대로 추출된 문제점과 그 가운데 教育大學院의 量的 實態 분석·검토에서 얻은 現實的 問題點을 종합·제시하는 동시에 그 改善方向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全國 43種의 專門大學院 865개 학과(전공) 수에 비하면, 현재 學生定員 36,429명은 극히 미흡하다.

둘째, 大學院 個別 現況에서 學生定員 100명 이하의 대학원이 11개교나 되며, 100~150명 사이는 6개교, 151~200명 사이의 대학원도 5개교로 결국 학생 정원 200명 이하의 大學院이 22개교나 됨으로써 量的인 측면에서 영세성과 운영 곤란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셋째, 教育大學院의 경우 현재 46개 大學院에 입학 정원 12,132명으로 1개 대학원당 264명 꼴이다. 이를 전국 초·중등 교원 수 306,359명과 비교하면 4%에 불과하다. 또한 학생 정원 200명 이하의 大學院이 16개교나 되며 재학 중 미등록자가 평균 15%나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영세 대학원들은 운영 면에도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교육대학원 入學을 희망하여 2,3차에 걸친 試驗에 낙방하여 급기야는 입학 포기해 버리는 현직 교원들의 士氣와 學究의 意慾을 북돋아 주고 敎員들의 再敎育 기회 확대와 專門性 提高라는 본래의 교육적 기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원 入學定員을 1개 大學院當 약 500명 선으로 대폭 증원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46개 教育大學院에 70개 전공 분야가 설치되어 있고, 전 대학원 설치 전공 수는 722개가 된다. 그러나 그중 약 10개 전공 분야에 집중 설치되고 있다. 이같은 실태를 감안하여 교육대학원의 定員政策을 合理的으로 수립하여 균형있는 增科 및 增員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入學定員 정책은 전국적인 안목으로 入學의 주 대상인 地域別 교원 수와 그 지역 대학 수용 능력을 고려하고 教育機會의 均등 원칙과 형평 원칙을 적용하여 增員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專門大學院은 사회 각종의 職業分野의 수요와 특수성, 지역별 균형 유지 및 극히 영세한 대학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하고 이에 따라 學生定員을 增員해야 할 것이다.

4. 教育課程 運營 現況과 問題點

教育課程의 基本構造와 운영은 專門大學院의 특수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구조와 운영은 융통성이 없고 경직되어 있으며, 각 전공 敎科課程 구성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교직 및 전공 과목 개설이 다양하다. 또한 '敎科敎育' 과목에 대한 이수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教育大學院 教育課程 운영 현황 검토를 통해서 그러한 교육과정의 취약점을 추출할 수가 있었다. 교육대학원은 敎職의 專門性을 제고하고 教育改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前提할 때, 교육과정은 그러한 敎育目的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教育大學院은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접속되는 上位敎育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수준도 그것보다는 높아야 할 것이다. 이제 교육과정 운영상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教育課程의 構造와 運營이 융통성이 없고 경직되어 있다.

교육대학원 교육과정의 전체 구조는 敎職共通 과목, 專攻 과목, 基礎(先須) 과목의 三元的 構造를 이루고 있는데, 입학에서 졸업까지 全 敎育課程을 통해서 일괄 이수하도록 배정하고 있어 선택의 여지를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없고 일률적으로 개설 과목을 의무적으로 일괄 이수해야 하는 경직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敎職 및 專攻科目의 개설이 매우 다양하다.

‘敎職科目’은 2개에서 10여 개 과목까지 개설하고 있다. 소수 과목을 개설한 경우는 가장 본질적인 과목이므로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많은 과목을 개설한 경우는 선택의 폭이 넓고 科目 명칭도 매우 다양하다. 또한 교육학 분야의 영역도 매우 광범한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많이 개설되고 있는 共通의인 科目은 敎育哲學, 敎育史, 敎育心理學, 敎育社會學 분야이다. 교직 과목의 이수 학점은 6~8 학점(3~4 과목)이지만, 6 학점(2~3 과목) 개설이 대부분이다. 또한 專攻科目의 개설 경향도 매우 다양성을 띠고 있다. 개설된 전공 과목 수는 약 30여 개 이상 많은 과목을 설정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르러 대체로 20여 개 과목 내외로 축소·조정되고 있는 경향이다. 그러나 專攻科目의 성격은 여전히 일반대학원의 전공 과목과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전공 과목 중 敎科敎育論, 敎科敎育研究方法論, 敎科敎育方法 등의 각 교과 교육에 관한 과목이 1~3 개 정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1~2 개 이상을 필수로 배정하고 있는 대학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基礎科目(선수 과목, 전공 기초)의 이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大學院은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 學科 재량으로 이수 여부를 위임하는 경향이다.

그 이유는 교육대학원이 제 자리를 구축함에 따라 학부 전공이 다른 사람의 입학이 줄어든 탓도 있고, 기초 과목을 이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이기 때문이다. 교육 계열에 입학한 학생의 대부분은 학부 전공과는 전공이 상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전공자의 절대 다수가 현직 교원임을 감안할 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여

겨진다. 이와 같이 기초 과목 설정과 그 이수가 감소됨에 따라 실질적인 교육대학원 교육과정 구조는 敎職科目과 專攻科目의 二元的 構造를 이루고 있다.

한편, 敎職 및 專攻科目 이수 학점은 과목당 2 학점이나, 3 학점이나에 따라 基本履修 과목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再檢討되어야 한다.

졸업 이수 학점은 총 24 학점, 학기당 6 학점을 요구하고 있는데, 3 학점인 경우는 8 개 과목을 이수하고 2 학점인 경우는 12 개 과목을 이수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敎授—學習의 폭에 깊이 관계되지만, 반드시 이수해야 할 主要科目을 이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어느 경우가 합리적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敎職共通科目 및 專攻科目까지도 學期 구분없이 합반 운영하고 있는 大學院이 많기 때문에 先修 및 後修科目系列性의 유지 문제, 異質의인 학생들과의 합반 수업의 경우 水準差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敎科敎育’ 분야에 관한 科目의 履修가 미흡하므로 앞으로는 더욱 권장되어야 한다.

현재 각 敎育大學院의 전공별 敎科課程에서 전공 필수나 선택 과목 등 전공 분야에 관련된 ‘敎科敎育論’이나 ‘敎科研究法’이 1, 2 개 과목 정도만 배정되어 있을 뿐이며, 세분화된 교과교육론이나 교직 과목으로서의 교과교육론은 거의 이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교육과정의 재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敎育大學院 교육과정의 구성과 그 운영 현황을 살펴 보았으나, 敎職의 專門性 深化라는 차원에서 검토·음미하여 볼 때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실 현재와 같이 基礎科目을 제외한 敎職科目과 專攻科目의 二元的 編制와 운영은 문제가 많다. 비록 몇 개의 교과 교육에 관한 과목을 전공 과목에 포함시키고는 있지만, 대부분 일반대학원의 전공 과목과 그 성격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다. 敎職科目 역시 몇 개의 과목을 필수로 과하거나 개설된 여러 과

목 가운데 몇 개를 선택으로 이수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직 과목의 選定基準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敎職課程과 專攻課程 간에 유기적으로 연관되는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같은 교육과정 운영으로는 교육대학원 본래의 敎育目的 달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大學院과 구별되는 獨自의 성격을 찾기도 힘들게 될 것이다.

교육대학원의 敎育課程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① 교육대학의 正體性 확립을 기하고 秀越性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專攻必須 과목은 敎科敎育과 관련된 과목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하며, ② 敎育學 碩士課程이므로 전공 과목의 방향이 敎科敎育學이어야 하고, ③ 전공 과정과 교직 과정은 敎科敎育을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④ 교육과정의 전체 구조(틀)는 교육 전문직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基礎課程, 교과교육학을 다루는 中心課程, 인접 학문을 다루는 擴大課程으로 재편성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같은 주장들에 合理性과 妥當性이 있다고 수용한다면, 지금의 敎職課程은 모든 교과 교육의 기본 원리가 되는 교직 교과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검토하고, 專攻科目을 대폭 개편하여 교과 교육의 내용으로 再構成하는 일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요컨대, 교육대학원의 特殊性을 살리고 교육 연구·전당으로서의 位相을 定立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敎育課程의 再編成과 운영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재의 敎職課程을 모든 敎科의 교육 목적, 敎授-學習, 생활 지도, 학급 경영, 학교 행정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敎育原理와 方法이 담긴 교육 내용으로 개편·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專攻課程은 各科敎育(예컨대, ○○科 교육 원리, ○○科 교육 방법, ○○科 교육 평가…… 등)으로 개편하되, 이것이 교육대학원 교육과정의 中心領域이 되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틀’을 만들어야 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점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5. 學位取得 및 學位論文의 性格·內容 檢討

전문대학원의 學位課程 및 學位取得節次(要件)는 再檢討되어야 한다.

學位論文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위 과정, 학위 취득 절차 및 방법, 관리 기법 등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은 그 設立目的과 性格이 다르기 때문에 학위 명칭, 학위 취득 과정, 절차도 제각기 特性을 지녀야 한다.

專門大學院은 대학 졸업자에게 사회의 각종 專門職 및 管理職 수행에 필요한 特殊敎育을 실시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中堅指導者의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개인의 修學 조건과 능력에 따라 ① 研修課程, ② 專門 碩士學位課程, ③ 中間碩士學位課程 등으로 구분·설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學位名稱’도 일반대학원에는 ‘碩士學位=學術學位(academic degree)’로 한다면, 전문대학원에서는 ‘專門碩士學位=專門學位(professional degree)’라는 명칭도 가능할 것이다.

敎育大學院에서의 학위 취득 절차와 요건을 살펴 보면, 현직 교원이나 직업을 가진 社會成人들의 입학 동기는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自我實現 의욕과 上位資格 취득, 그리고 昇進要件에도 관련이 깊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碩士學位’를 취득하는 데 있을 것이다. 大學院課程에서의 노력의 結集이요, 學問研究의 表證이기도 한 學位論文은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것이어야만 더욱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대학원 교육의 성과는 일차적으로 學位論文의 質에 반영된다. 學位論文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동안의 敎授·研究의 결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육대학원의 質을 평가하는 準據가 된다. 따라서 學位論文의 質을 높이려는 노력은 개개인의 學問的 結實의 秀越性에 관련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바로 교육대학원의 質을 향상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學位論文 제출 자격은 교육법 시행령 제121조에 의거, 교직 과목과 전공 과목을 포함한 24 학점을 취득하고 소정의 外國語 및 綜合試驗에 합

격하여야 한다. 그리고 論文指導 과정을 거쳐 논문을 작성·제출하고 예심과 본심에 통과하여야 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外國語試驗은 모든 전공 영역에 공동 출제하는 경우와 각 전공 영역별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다. 필기 시험과 구술 시험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일정한 敎材를 지정하여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 시험 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우와 定時制 英語講堂를 거쳐 시험에 응하도록 하는 등 시험의 형식은 다양하다.

綜合試驗의 경우는 교직 과목과 전공 과목 중에서 3개 과목 정도만 선택하게 하여 시험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으로 외국어 시험이나 종합 시험의 合格基準에 대한 객관적인 準據가 설정되어 종합 시험이 형식화된다는 비판을 없애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대학원 교육의 秀越性을 가능하는 중요한 準據의 하나가 學位論文의 質이기 때문에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한편, 學位論文의 性格과 內容에 대한 再檢討가 필요하다.

이는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이 주제 및 내용에 있어 敎科敎育論과 연계되지 못하고 순수 전공 분야의 논문이 주종을 이루고, 同一專攻 분야의 논문 주제 및 내용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대학원 본래의 교육 목적이나 성격을 의심하게 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 實證의 근거를 <표 12>와 <표 13>에서 살펴 보면, 1969~1990년 사이에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은 총 29,192 편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79~1989년까지 10년 간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의 주제와 내용을 살펴 보면, 총 14,194 편 중 교육 계열의 논문은 2,307 편(16%)에 불과하였으며, 순수 전공 분야의 논문은 11,887 편으로 84%를 점유하고 있다.

순수 전공 분야의 學位論文이 계속 작성·제출된다면, 일반대학원과 하등 다를 바 없으며學位 명칭도 文學碩士, 理學碩士, 學術碩士 등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또한 學位論文 주제의 重複性和 內容의 類似性에 대한 검토를 위해 1986~1988년에 통과된 전국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살펴 보면, 교

<표 12> 전국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전공별 경향 (1979~'89)

전공	분야별 통계		계
	교육 분야	순전공 분야	
국어 교육	116	1,365	1,481
영어 교육	262	1,097	1,359
일반사회교육	118	489	607
미술 교육	155	788	943
역사 교육	48	512	560
상업 교육	54	246	300
수학 교육	303	1,159	1,462
공업 교육	69	174	243
물리 교육	120	330	450
가정 교육	61	347	408
농업 교육	12	110	122
체육 교육	288	1,849	2,137
화학 교육	133	419	552
과학 교육	9	48	57
생물 교육	50	551	601
지리 교육	18	153	171
지학 교육	24	196	220
국민윤리교육 (윤리 교육)	92	687	779
사회 교육	28	140	168
한문 교육	22	143	165
음악 교육	254	652	906
독어 교육	10	58	68
지구 과학	3	14	17
사학 교육	2	10	12
간호 교육	20	109	129
건축 교육	3	2	5
원예 교육	—	1	1
농학 교육	—	18	18
농공 교육	—	3	3
축산 교육	—	2	2
일사 교육	1	6	7
전기 교육	1	12	13
금속 교육	—	5	5
토목 교육	—	6	6
일어 교육	11	102	113
한국어 교육	8	38	46
분어 교육	5	24	29
사서 교육	7	22	29
총 계	2,307(16%)	11,887(84%)	14,194

* 자료: 全國 教育大學院 教育學碩士學位論文 目錄 (제1~3집) 참조.

<표 13> 전국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통계)

(1969~1990.2)

과목명	논문수	과목명	논문수
국어교육(한국어포함)	2,166	상(학교상담, 상담교육, 심리교육 포함)	640
영어교육	1,926	유아교육	389
언어교육	370	시정각교육(교육공학포함)	35
수학교육	1,829	특수교육	84
역사교육	739	중경사교육	89
한국문학	200	경사교육	38
국민윤리교육	924	일사회교육	95
교육행방	3,974	사회교육	1,172
교육심리	394	지리교육	496
교육심리및교육방	396	음악교육	334
교육심리및교육방	9	미술교육	1,382
교육심리및교육방	74	미술교육	1,185
교육심리및교육방	72	미술교육	110
교육심리및교육방	13	미술교육	42
교육심리및교육방	27	미술교육	136
교육심리및교육방	87	미술교육	5
교육심리및교육방	117	미술교육	46
교육심리및교육방	87	미술교육	14
교육심리및교육방	111	미술교육	428
교육심리및교육방	263	미술교육	220
교육심리및교육방	28	미술교육	15
교육심리및교육방	2,642	미술교육	15
교육심리및교육방	66	미술교육	60
교육심리및교육방	198	미술교육	1
교육심리및교육방	711	미술교육	8
교육심리및교육방	1	미술교육	7
교육심리및교육방	742	미술교육	8
교육심리및교육방	816	미술교육	3
교육심리및교육방	217	미술교육	1
교육심리및교육방	228	미술교육	8
교육심리및교육방	400	미술교육	
교육심리및교육방	19	미술교육	
교육심리및교육방	557	미술교육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1969~1987)	1,723
		총계	29,192

*자료 : 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 전국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목록(제 1, 2, 3, 4집 1969~1990.2).

육 계열 ‘教育行政’ 전공의 경우 ‘學校長의 指導性類型과 敎師士氣에 관한 연구’가 7개 대학원에서 발표되었고, ‘國語教育’ 전공 분야에서도 ‘정지용詩語연구’라는 주제가 5개 대학원에서, ‘채만식 소설연구’도 4개 대학원에서 同一主題로 발표된 바 있다(자료 : 全國 教育大學院 教育學碩士學位論文 目錄 2~3집 참조).

이러한 현상은 先行 研究論文의 모방과 표절의 우려가 다분히 개재되어 있으므로 기존 논문

목록집과 論文內容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論文 指導 과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學位論文’의 질적 향상이라는 전제하에 전문대학원의 學位取得 절차 및 방법상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 學位論文의 성격 및 내용의 秀越性 문제, 論文主題의 중복성과 內容의 유사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그 개선 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專門大學院의 碩士學位 성격이나 專門

정에 입각하여學位取得 절차 및 관리 방법의 특성을 살려 나가야 할 것이며, 학위 명칭 및 과정의 特殊性을 고려한 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어 및 종합 시험의 客觀的·合理的인 기준을 마련하여 形式化되지 않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관리·운영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대학원의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서의 주제 및 내용이 순수 전공 논문이 아닌 教科教育論과 연계되는 논문이 주종을 이루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넷째, 同一專攻 분야의 논문 주제 및 내용의 중복성과 내용의 모방성·유사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원 教育學碩士論文 目錄」을 참고로 先行 研究論文 주제를 파악하고 선행 연구 주제와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는 예의 검토를 토대로 論文 작성·지도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博士學位課程의 進路 및 資格

專門大學院 출신의 博士學位課程의 進路和 入學資格 부여에 대한 是非는 再檢討되어야 한다.

최근 專門大學院(教育大學院) 碩士學位 소지자에 대한 일반대학원 博士課程 入學資格 부여에 대한 是非가 일고 있는 가운데 원서 접수 단계에서 기절당하거나 입학 전형 과정(면접)에서 탈락시키는 사례도 있다. 한편, 중등교육 기관에서 教科 담당 교사들이 자신의 담당 과목 분야의 전공 영역(예: 영어교육, 국어교육, 수학 교육 등)으로의 博士學位課程 진학 통로가 열려 있지 못하다.

이 문제는 일반대학원의 學問的 權威와 博士學位의 質的 向上이라는 차원에서 오랜 동안 論難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博士學位課程 入學資格 요건은 碩士學位 소지자는 어느 누구나 入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碩士學位 전공 분야의 同一系이어야 한다는 제한 조건뿐이다. 그런데도 최근 教育大學院 入學案內에서 “本 大學院 碩士學位 取得者는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 자격 부여의 特典을 준다”고 못박

아 놓고 있다. 이러한 특전의 하나로서 제시된 것은 바꾸어 말하면 他大學院 출신은 入學資格을 불허한다는 전제가 된다. [이것은 法的 根據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회 균등과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개인의 教育權을 침해하고 자유 경쟁과 공개 시험을 통해서 차별없이 선발해야 하는 民主主義 원칙이나 民主教育의 理念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專門大學院 출신자에 대한 同一系 入學資格 부여 是非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一般大學院에 '教科教育' 전공을 위한 博士課程이 설치되어야 한다.

教育大學院 입학자의 거의 80% 이상이 現職 教師이며, 그중 中等教師의 비중이 높다. 교육대학원 자체에 그들이 진학할 수 있는 教科教育 전공을 위한 博士學位課程을 설치해야 한다는 건 의도 수차에 걸쳐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學問 연구와 教育 연구를 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및 시설 등이 갖추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현재 서울大 大學院(주간), 韓國教員大 大學院에 教科教育 전공 분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기타 일반대학원에도 확대 설치하여 교육대학원 출신자가 '教科教育' 전공으로 博士課程에 진학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是非·論難되어 왔던 專門大學院 출신자(碩士學位 소지자)의 博士課程 입학 자격 부여 문제는 전혀 法的 根據가 없고 專門大學院 교육을 格下視하는 소치라고 보여진다. 자유 공개 시험에서 그러한 차별은 있을 수 없고 교육 기회의 균등과 형평의 원칙, 민주주의 교육 이념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碩士學位 소지자로서 同一系 전공 분야의 博士課程은 어느 누구나 입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각 專門大學院의 特殊性을 고려하여 일반대학원 博士課程 開設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교육대학원 출신자에 대한 '教科教育論'을 전공할 수 있는 博士課程을 일반대학원에 설치하여 上位學位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7. 特惠規定・制度와 問題點

전문대학원의 入學銓衡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제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입학 전형에서 현직 교원 및 교장, 교감, 주임 등의 보직 교사와 교육 행정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입학 전형상의 우대 또는 특별 전형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다양하며 면접 방법 및 점수, 교육 경력 점수 평가 기준도 다양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客觀性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교육대학원 入學試驗 전형 과정에서 각종 우대와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권장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대학원에 따라 일정한 客觀的・教育的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경쟁적으로 시행될 때, 자칫하면 그 客觀性과 公正性이 흐려질 우려가 있다.

入學節次에서도 면접과 서류 전형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대학원이 있는가 하면, 영어 및 전공 과목, 면접 경력 평가 등의 종합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선발하는 대학원도 있다. 또한 英語 시험은 과하지 않고 專攻科目(70 점), 면접(15 점), 경력 점수(15 점) 등 총점 100 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 총점 순위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대학원이 있다. 이같이 다양성을 띠고 있는 入學銓衡方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느냐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각종 特惠規定 및 制度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교육대학원의 경우 등록금 감면, 장학금 혜택에 대한 규정이나 제도가 일정한 기준이 없고 각 대학원마다 매우 다양성을 띠고 있다. 각 大學院의 實例를 보면, ① 현직 교사에게는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K大), ② 교장, 교감, 장학사, 교사에게는 매학기 소정의 장학금 지급(I大), ③ 현직 교원에게 전 이수 기간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S 여大), ④ 현직 교원에게 수업료의 25% 감면 혜택(H大), ⑤ 현직 교원 및 교육 관계 공무원에게는 수업료의 30% 감면(D大)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대학원 간의 차등과 유인 조건이 入學生

의 심리적 갈등과 불만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한편, 上述한 바와 같이 入試銓衡上의 우대에 있어서도 현직 교원, 교장, 교감, 주임 및 교육 행정・연구 전문직, 장학직, 목사직 등에 종사하는 자는 면접 및 교육 경력 평가 점수를 우대 반영하는데 그 기준(규정)이 다양성을 띠고 있다. 예컨대 ① 현직 교원 및 교육 행정 전문직 종사자는 전형에서 우대함(K大, S大, H大 등), ② 대학 교원, 현직 교사, 실무 경험 경력자가 재훈련 목적으로 입학하려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함(Y大), ③ 中等學校 교장, 교감, 장학사는 시험에서 특별 전형할 수 있음(H大), ④ 教育學系列 전공에 입학하려는 현직 교장, 교감 및 장학직은 특별 전형함(D大), ⑤ 종교 교육 전공에 지원하는 목사직에 있는 자는 면접에서 특별 전형함(K大) 등 매우 다양하다. 물론 이러한 特惠規定은 專門大學院의 특성에 맞추어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나, 同一系列 대학원들이 경쟁적으로 유인 조건화하는 과정에서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오히려 본래의 뜻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각 대학원 入學銓衡上의 혜택이나 제한 및 이수상의 특혜 규정・제도는 보다 좋은 학생, 보다 우수한 학생, 보다 현장 경력을 가진 자, 보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를 선발하겠다는 뜻에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지나치게 각 대학원 간에 균형이 깨어질 정도로 어느 特定人에게 무리한 特惠를 부여하면, 특별 전형 과정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차별 전형 결과 入學生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며 他大學院과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종 特惠規定 및 制度가 본래 취지를 살리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大學院 간의 同一基準 확립과 客觀性의 유지 및 相互協助體制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參考文獻>

金蘭淳, 「大學院의 課程編成과 運營」, 교육출판사, 1979.

_____, 「大學改革論」, 良書院, 1989.

鄭宇鉉外, 「우리나라 大學院 學位制度改善에 대한

研究」, 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8.
서울대학교編, 「大學院重點育成研究結果報告書」(제 2 권—제 3 권), 1979.
李南杓, “大學院 教育課程의 再定立을 위한 提案”, 「大學教育」, 통권 42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9.
金大淵, “教育大學院 位相定立을 위한 檢討”(全國

教育大學院長協議會 세미나 발표 요지), 1990.
文教部, 「문교동계연보」, 1990.
中央教育評價院, 「文教統計總覽」, 1990.
韓國敎總編, 「한국교육연감」, 1990.
김운태, “大學院 현황과 문제”, 「大學教育」, 통권 11호, 1984, p.15.